

밴드게임 '카카오 아성'에 도전장

모바일게임 플랫폼 경쟁 2라운드

일주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 돌파 라바링크 등 앱 인기순위 상위권에 랭크 카카오게임 인기는 여전... 넘어야 할 벽

카카오특이 '나홀로 질주'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게임 플랫폼 시장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스마트폰 게임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서비스 시작한 '밴드게임'은 초반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며 연락처 조짐을 보인다. 모바일 시장의 양대 축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밴드게임' 조용한 돌풍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은 19일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를 통해 게임 플랫폼을 내놨다. 이로써 네이버는 일본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3억5000만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한 '라인게임'과 더불어 자회사를 통한 국내 시장 공략에도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초반 성과도 좋은 편이다. '밴드게임'은 일주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했다. 또 21일 기준으로 관련 게임들이 구글플레이 인기 순위 상위권에 진입하며 눈길을 끈다. 카카오의 '라바링크'는 꾸준히 다운로드가 발생하며, 구글플레이 전체 인기무로 순위 8위를 기록했다. '카카오게임' 일색이던 게임 카테고리에선 4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TV의 '역전! 맞짱타구'가 게임 카테고리에서 11위에 올랐고, 피닉스게임즈의 '명랑운동회'도 23위에 랭크됐다.



국내 모바일 시장의 강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게임 부문에서도 맞대결을 펼친다. 19일 출시한 뒤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하는 등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며 '카카오게임'의 아성에 도전 중인 '밴드게임'. 사진제공 | 캠프모바일

밴드게임은 '밴드게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추가할 계획이다. 당장 22일 미드코어 중심의 게임 10종을 추가 공개하고,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식 '밴드'를 게임 개발사들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 견제한 '카카오게임'은 넘어야 할 산

'밴드게임'이 초반 인기몰이에 나섰지만, 성공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국내 모바일게임 플랫폼 최강자 '카카오게임'이 아직 견제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게임'은 출시 1년이 되던 지난해 7월 누적가입자가 이미 3억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5월 초 5억명을 돌파하며 기록을 새로 썼다. 게임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론칭 당시 7개 파트너와 10개 게임을 선보였던 '카카오'

게임'은 현재 230여개 이상의 국내외 파트너와 460여개에 달하는 모바일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파트너사들을 포함한 누적 매출은 올해 초 1조원을 넘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플랫폼 경쟁은 앞으로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콘텐츠 제공사들도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1인 개인 방송 동영상 서비스 아프리카TV가 운영하는 게임센터는 서비스 6개월을 맞아 32개의 게임을 확보하는 등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고, 게임사 NHN엔터테인먼트도 자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최근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플랫폼 프로모션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관심을 모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사진 왼쪽부터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레드', CJ제일제당 '팻다운 아웃도어', 롯데칠성음료 '닥터&닥터', 한국아쿠르트 '록', 광동제약 '로즈히터', 일화 '조정탄산수 라임'

노출의 계절 '날씬한 음료'가 대세

여름 맞아 다이어트음료 출시 붐몰 저칼로리·저당에 식이섬유까지 OK CJ '팻다운'은 체지방 감소 효과도

여름철은 음료업계 최대 성수기다. 날씨에 예년보다 빨리 더워지면서 업계에서는 몸매 관리에 민감한 젊은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한 다이어트 콘셉트의 음료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들을 살펴봤다.

● 저칼로리, 저당은 기본! 체지방 감소 효과까지!

현대약품은 자몽향이 첨가된 저열량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 레드'를 출시했다. 미에로화이바 레드에는 저칼로리(15kcal) 저당류(0g) 음료다. 칼로리에 대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오렌지색이던 기존 미에로화이바의 브랜드 컬러를 열정과 젊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바꿨고, 음료 섭취량이 많은 여름 시즌에 맞춰 350ml PET제품으로 출시했다. 과다한 영양섭취를 막고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는 식이섬유 5g을 함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리뉴얼 출시한 '팻다운 아웃도어'는 상큼한 자몽맛을 강화해 청량감을 더한 제로(Zero) 칼로리 제품이다. 패키지도 나선형의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몸매 라인을 강조했다. 컬러는 산뜻한 푸른 색감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하루 한 병, 물처럼 혹은 물 대신 마시면 갈증해소는 물론 체지방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이어트 워터다.

롯데칠성음료가 출시한 '닥터&닥터'는 롯데칠성음료와 차병원 소속 의료진이 공동 개발해 만든 건강 브랜드다. 제로 칼로리 제품으로 부담 없이 음용할 수 있다. 체지방 감소를 돕는 성분인 L-카르니틴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5를 함유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한국아쿠르트가 리뉴얼해 선보인 '룩(LOOK)'은 체지방 감소,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건강, 배변활동 원활 등 3가지 효과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국내 다이어트 제품 최초로 이중 캡을 적용했다. 다이어트와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판두라틴은 알약 형태로, 식류농축액과 식이섬유 성분을 액상 형태로 한 병에 담았다.

광동제약의 신제품 '광동 로즈히터'는 여성들을 타깃으로 로즈힙, 피수콜라겐, 히알루론산 등을 사용한 음료다. 들장미 열매인 로즈힙은 비타민C를 비롯해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원료로 다양한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한 병(340mL)당 25Cal의 저칼로리다.

일화는 '조정탄산수 라임'을 출시했다. 기존의 조정탄산수 플레인에 100% 천연 레몬과 상쾌한 라임향을 첨가해 탄산수 풍미를 배가시킨 것이 특징. 세계 3대 광천으로 유명한 초정리 광천수로 만들었다. 일반 탄산수보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설탕과 색소, 인공첨가물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최초 시뮬형'으로 불리는 '리니지2'의 바츠해방전쟁 10주년을 맞아 클래식 서버를 공개하는 등 게임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 엔씨소프트

리니지2 '바츠해방전쟁 10주년' 용사들 다시 뭉쳤다

2004년 벌어진 온라인 최초 시뮬형 역사기록 영상 상영 등 기념행사 개최 클래식서버 최초 공개 등 재도약 나서

온라인 최초 시뮬형으로 불리는 '바츠해방전쟁'이 10주년을 맞았다.

엔씨소프트는 21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2'의 '바츠해방전쟁'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시 쓰는 당신의 크로니클' 행사를 열고, '클래식 서버'를 최초 공개했다. '바츠해방전쟁'은 '리니지2'의 바츠 서버에서 2004년 6월부터 약 4년 동안 20만명 이상의 유저가 참여한 게임 내 전쟁. 아무 관계도 없던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형 권력(DK 길드)'에 저항해 자유를 찾은 온라인 최초 시뮬형으로 당시 큰 이슈가 됐다. 무엇보다 이후 서적과 웹툰 제작은 물론 논문과 예술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2차 콘텐츠가 재생산되는 등 온라인 게임의 사회·정치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당시 '바츠해방전쟁'에 참여한 유저들을 포함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바츠해방전쟁' 히스토리 영상이 상영되고, 바츠 용사(바츠해방전쟁에 참여한 유저들)의 핸드 프린팅 행사도 열렸다.

엔씨소프트의 남궁근 PD가 클래식 서버를 최초 공개하며 '리니지2'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클래식 서버는 '리니지2' 카오틱 크로니클 시대의 과거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현한 특화 서버로 28일 오픈 예정이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임 공식 홈페이지(lineage2.playn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글로벌리브사업1실 이성구 실장은 "한국 온라인 게임사의 큰 획을 그은 바츠 용사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진행해 큰 영광이다"며 "이용자 목소리를 토대로 클래식 서버를 구현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강청결제인 '케어가글즈'를 활용한 가글 사용법 교육이 진행됐다.

한독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업 선정 한독이 중소기업에서 진행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업으로 선정됐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청이 2017년까지 세

계적인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연구회 등 20개의 기관을 통해 기술, 인력, 자금, 시장확대, 컨설팅 등 맞춤형패키지를 지원 받게 된다.

김명근 기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근막동통증후군' 부른다

고개 숙이고 화면에 몰두...목·어깨 위험 잦은 키보드 작업은 손목 건강에 빨간불

출퇴근길이나 여가시간에 스마트기기 사용이 잦아지면서 목, 어깨,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똑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이다.

목 통증과 동시에 나타나는 어깨 통증의 주원인은 근막동통증후군이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기기 화면에 몰두하다 보면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곳이 심하게 결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느껴진다. 이는 어깨나 뒷목 주변 근육이 쉬지 못하고 오랜 시간 긴장하면서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 발생한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스마트기기로 게임이나 영화를 볼 때 가끔씩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좋다. 고개를 숙이고 볼 때는 잠시

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컴퓨터는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10~15도 정도 아래로 내려다보고, 턱은 항상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듯 반듯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작업 중 틈틈이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이나 턱 당기기 운동을 반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키보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장시간 있는 자세를 피하고,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가며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손목에 폭신한 스펀지나 손목쿠션 같은 것을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평명찬병원 강현석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근막동통증후군은 초기에는 휴식과 마사지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된다면 근육조직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신호이기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테이핑이나 물리치료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심할 때는 주사로 통증을 없애는 통증유발점 주사로 치료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ajaplo

국내 저가항공 뜨고, 외국 저가항공 지고...

외국계, 운송 지연 위험·수수료 부담 높아

최근 시장이 급성장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내 LCC는 탑승객이 증가하는 반면 외국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외국 국적의 LCC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승객은 1405만명이고, 이 가운데 14.1%인 198만명이 LCC를 이용했다. 항공사 국적별로 탑승객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국적 LCC 승객은 136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나 증가했다. 반면 에어아시아계, 세무퍼시픽, 스쿠트항공, 피치항공 등 외국계 LCC의 승객은 6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6.4% 줄었다. 이처럼 외국계 LCC

의 이용객이 감소한 것은 운송 지연 등의 피해가 더 많고, 수수료 부담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외국계 LCC 관련 피해 접수는 209건으로 국내 LCC(87건)보다 2.4배나 많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운송 불이행, 지연'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절'이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LCC는 예약 수수료 별도 청구하지 않지만 외국계는 예약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필리핀 에어아시아계는 콜센터나 공항카운터에서 예약하면 1만5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일본 피치항공도 콜센터 이용하면 3만900원, 공항카운터에서 구입하면 최대 4만6300원을 더 내야 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kobaukid